

# DJ센터 사장 갑질 논란 추궁

### 광주시의회 채은지·박필순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일 그 따위로 해” 직원에 모멸감...수의계약 특혜 의혹도

3일 열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서는 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 갑질 논란으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김상목 사장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또한, 김 사장의 ‘지인 챙기기’를 위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도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민주·비례)의원은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사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는 직원의 동영상을 공개하며 김 사장의 직원들에 대한 폭언 등을 집중 추궁했다.

채 의원이 공개한 동영상에서 피해 직원은 “업무 보고를 하던 중 사장이 ‘일을 어떻게 그따위로 하나?’, ‘할 일이 그렇게 없냐는 등 심하게 말을 해 모멸감을 느꼈다’며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눈을

도 많이 흘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석증까지 앓고 출근했는데 다시 폭언을 들어야 했고, 정신과 상담을 받았더니 최소 3개월의 약물 치료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았다”며 광주시에 경위 파악과 재발 방지 개선책을 요구했다.

박필순(민주·광산3)의원은 김 사장의 지인 챙기기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수의 계약으로 제보받은 사례만 11건에 4000만원이 넘는다”며 “직원들이 제보를 꺼려서 확인되지 않았거나 구두로만 지시받은 사례까지 밝혀진다면 상당한 배임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제기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은 지난 4월 한 전시회에서 행사 홍보비

예산 315만원으로 지인인 A씨의 책을 구매했고, 지난 6월에는 전 직장에서 알게 된 B씨가 운영하는 법인과 교육파트너십 체결을 하고 500만원을 썼다.

이어 9월에도 B씨에게 감사료 등으로 97만원을 지급했다.

박 의원은 “모 전시회의 경우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전액 시비로 대행,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를 지인인 C씨의 업체에 1억 원을 들여 맡기려고 했다”며 “센터 사무국의 주요 업무를 지인의 업체에 소개한 것은 엄연히 부당한 업무 협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책 구매와 수의계약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 특혜 의혹은 부인했다.

김 사장은 “직원들이 업체를 찾지 못하면 아는 업체를 소개해준 것일 뿐 사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특혜를 줬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센터의 발전을 위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몰수한 마약 관리·폐기 허술

###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이재태 의원 “도·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미흡”

전남도가 몰수한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보관·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몰수한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폐기도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마약류를 보건소 뒷마당·냄비로 소각=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선국(더민주·목포 1)의원은 전남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해야 할 몰수 마약류를 지난 22년 간 시·군 보건소가 수사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임의로 관리해왔다”고 지적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광역자치단체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인계받아 보관해야 하고 시·군 보건소를 통해 폐기해야 하는데 수사기관과 시·군 보건소가 임의적으로 보관, 폐기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마약류 의약품의 소각·폐기 상 문제점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9조)에 따라 ‘소각장,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 폐기해야 한다’, ‘...폐기할 때에는 2명 이상의 관계공무원이 입회해야 하고...’, ‘가급적 사법경찰 관계공무원이 입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실태는 보건소 뒷마당이나 냄비 같은 곳에 담아 태우고 있다며 현장 소각 사진을 공개하고 안전한 관리·폐기 행태를 꼬집었다.

최 의원은 또 “무려 174회에 걸쳐 이같은 소각 방식으로 마약류 의약품이 폐기됐으며 전남도 담당 공무원은 단 한 번도 소각 과정에 입회하지 않았다”면서 “전체 폐기 물량의 60%에 이르는 130여회의 사법경찰 없이 폐기했고 11개 시·군은 사법경찰관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로 소각이 이뤄졌다”며 “꼼꼼한 관리 처분을 주문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왜 안하나=전남도도 교육청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도 미흡하다는 지적도 여전했다.

이재태(나주3) 전남도 의원은 3일 전남도 일자리경제본부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율은 전남도 4.24%, 도교육청 2.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관례 조례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도내 22개 시·군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율은 지난해 평균 5.37%고, 한편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율은 0.19%에 불과하다”며 “공기업이 많은 나주시 빛가람동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우 기자 dok2000@k



저소득 장애인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3일 광주 북구 운암동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자동차과에서 열린 북구청과 한국폴리텍대학의 저소득 장애인차량 무상점검 서비스에서 자동차학과 학생들이 장애인차량의 노후 부품을 교환하는 등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나영주기자mjna@kwangju.co.kr

## “산·학·연·관 협력해 차세대 배터리 육성”

### 광주시-11개 기관 정책 간담회

광주 산·학·연·관이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꼽히는 이차전지 분야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광주 평동산단에 있는 세방리튬배터리에서 11개 기관이 참

여한 가운데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우중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장은 이날 발제에서 “현재 널리 사용되는 리튬이온배터리는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이번 카오 먹통 사태를 빚은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어 고성능·저가화·안전성 차

세대 배터리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 연구개발(R&D), 지역 기업 간 연계 강화 등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광주시는 남구 도시첨단산단 대용량 배터리 시험인증센터, 빛그린 산단 친환경 자동차 부품인증센터, 2024년 준공 예정인 배터리 모듈·팩 시험평가센터 등 인프라를 활용해 차세대 배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 광주시,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최고 등급’

### 감사 전문성·독립성·성과 ‘탁월’...특광역시 중 유일

광주시는 ‘감사원 주관 ‘2022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전국 최고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매년 지자체와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66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 인프라, 감사 활동, 감사 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 25개 지표를 근거로 A부터 D등급까지 평가한다.

광주시는 해마다 감사기구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감사활동 강화 및 모범사례 발굴, 시민감사관 제보사항 감사반영, 적극적인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일상감사 활성화, 청렴기동반 활동 등 감사 개선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2021년에는 어린

이 보호구역 관리 실행 등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성과감사 실시, 지방계약 원가심사 등을 통한 300억원 예산 절감,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19억원 예산환수 등 어느 해보다 풍성한 감사 실적을 거둬 평가지표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갑재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원 평가에서 ‘A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실시한 광주시의 의지와 시민 눈높이에 맞춘 감사 역량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사사항 등을 발굴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도시공사, 3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광주도시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020년 처음 인정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광주·전남 지역 공공기관 최초로 3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사회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속적인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008년 임직원으로 구성된 나누미봉사단을 창단하고, 사회공헌 브랜드 ‘The 모아 The 배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장수사진 촬영’, ‘농촌 일손돕기’ 등 각종 물품 후원 및 기부 등 다각화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공사가 3년 연속 지역 사회공헌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정보는 넘쳐나지만, 진실은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당신과 세상을 밝혀주는 진실-언제나 신문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소문을 쫓을 때  
신문은 진실을 찾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